

#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동화 분야

작품 제목	단풍이의 청렴 대모험
-------	-------------

## 동화 본문

푸릇푸릇한 잎을 가진 단풍나무 부자(父子)는 풍풍마을에 꿀벌들과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말벌들이 아빠 단풍나무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아빠 단풍나무에게 많은 양의 달콤한 물을 가져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사는 꿀벌들보다 달콤한 물을 더 많이 줄게. 그러니 꿀벌들 말고 우리랑 일하자!”라며 아빠 단풍나무를 유혹했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건 받을 수 없어. 이미 꿀벌 친구들과 일하고 있는 걸...”

아빠 단풍나무는 오랫동안 함께 하던 꿀벌들을 떠올리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말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아빠 단풍나무를 따라다녔어요. 결국 아빠 단풍나무는 힘센 말벌들의 속삭임에 넘어가 성실한 꿀벌들을 내쫓았어요.

“이야~ 시원하다”

아빠 나무는 말벌들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물을 꿀걱꿀걱 마셨어요. 행복도 잠시, 아빠 나무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뿌리 끝부터 서서히 썩기 시작했어요. 옆친 데 댈친 격으로 다른 나쁜 벌레들이 아빠 나무의 썩은 뿌리 틈을 파고들었어요. 그러자 아빠 나무의 알록달록한 잎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어요.

“어... 왜 이러지? 이상하다? 내 자랑거리인 알록달록한 잎이 없어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아빠 나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흑흑, 우리 아빠 어떡해... 가지의 잎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빠 나무를 옆에서 지켜보던 효심 깊은 아기 단풍나무는 속상해했어요.

그때, 코끼리 약방 선생님이 ‘검은 유혹에 빠져 잎이 시들기 시작할 때, 청렴수(水)를 마시면 예전처럼 건강한 뿌리와 잎을 가질 수 있단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기 나무는 가방에 물, 호신도구, 그리고 아빠 단풍나무의 사진을 챙겼어요. 그러고는 아빠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를 구할 청렴수를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무작정 길을 나섰지만, 사실 아기 나무는 겁이 났어요. 청렴수를 얻기 위해선 무시무시한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려움도 잠시, 아기 나무는 신발 끈을 짝 묶고 힘차게 나아갔어요.

울긋불긋한 단풍나무 숲을 지나, 노란 은행나무 숲을 지나, 조그만 다리를 건너자, 소나무의 뽀족뽀족한 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리 앞에 서 있던 소나무 문지기는 이렇게 물었어요.

“아기 단풍나무야. 여기는 무슨 일로 왔니?”

아기 나무는 무서운 목소리에 겁을 먹었지만 이내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가 아파요! 청렴수를 구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소나무 아저씨!”

소나무 문지기 아저씨는 어린 단풍나무의 모습을 기특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 어린 너에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세 개의 관문 중의 두 개를 통과해야 청렴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니?”

“네! 아빠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를 내어보마. 네가 유치원에서 급식 당번을 맡은 날, 점심 메뉴로 소시지가 나왔단다.

나누어주기로 한 소시지는 3개지만, 친한 친구들이 와서

“다음 우리 당번일 때 네가 원하는 거 하나 더 줄 테니까 오늘 소시지 하나씩 더 줘!”

라고 부탁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음... 친한 친구들의 부탁이니 잠시 망설일 거 같아요. 하지만 소시지를 하나씩 더 주게 되면 마지막 순서인 친구들이 먹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기 나무의 답을 들은 소나무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내가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그렇기에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단다.”라고 말했어요.

아기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순조롭게 풀어서 다행이다. 괜히 걱정했네! 남은 문제를 빨리 풀어서 아빠에게 청렴수를 가져다 줘야지!’라고, 생각하며 흥가분한 마음으로 두 번째 관문으로 향했어요.

소나무 숲을 지나자 커다란 연못에 도착했어요. 연못 위에 두둥실 떠 있는 연꽃 아주머니가 아기 나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발그레한 볼을 가진 연꽃 아주머니는 호호호 웃으며 아기 단풍나무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네가 그 아버지를 구하러 온 아기 나무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다가오는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아기 나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장난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길을 가다가 네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버스 정류장에 떨어진 것을 보았어. 처음에는 주인이 가지러 오겠지,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 다시 가보았더니 그대로 있었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넌 그 장난감을 가져가겠니? 아니면 주인을 찾아주겠니?”  
아기 나무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흠...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주인도 없는데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버려진 물건이었는데 설마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

깊은 고민 끝에 아기 나무는 말했어요.

“장난감을 주워서 제가 가질래요! 며칠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제가 주워서 집에 가져가도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요?”

대답을 들은 연꽃 아주머니는 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물건이라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단다. 주인이 간절하게 찾고 있을 수도 있어. 역지사지로 네가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찾아준다면 정말 기쁘겠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꼭 주인을 찾아주렴”

연꽃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기 나무는 틀린 것을 아쉬워했어요.

‘아쉽다... 조금만 더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봤다면 정답도 맞히고 아빠에게도 더 빨리 청렴수를 가져다 줄 수 있었을 텐데...’

연꽃 아주머니는 아기 나무에 다음 관문에 대해 귀뜸하여 주었어요.

“마지막 관문은 지난 과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관문이란다. 두 번째 관문은 실패했으니 남은 관문은 꼭 맞춰야 한단다.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아기 단풍나무야.”

아기 나무는 다음 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기 나무는 울창한 대나무 청렴숲 앞에 있는 마지막 관문에 도착했어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아기 나무는 수염이 긴 대나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나는 이 대나무 청렴숲을 대대로 지키고 있는 대장이란다. 너에게 긴 여정이었을 텐데 대견하구나. 참으로 대단해. 마지막 문제를 꼭 맞춰야 청렴수를 가져갈 수 있단다. 허허.”

아기 나무는 대나무 할아버지의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대나무 할아버지. 저는 준비됐어요! 문제 주세요.”

대나무 할아버지는 길고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문제를 말해주었어요.

“이야기를 잘 듣고 너의 생각을 말해보렴. 산속 마을에 몇 백년 만의 가뭄이 찾아와 동물들이 쓰고 마실 물이 부족해졌단다. 물을 관리하던 하마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양을 차례대로 마을 동물들에게 나눠 준다고 선언했지. 어느 날 호랑이 이장님이 찾아와 “이봐 하마 양반. 아무리 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너무 적지 않나? 내가 이 마을의 이장이니 마을의 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에게 물을 좀 더 주게”라고 말했단다. 이 말을 들은 하마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 이때 하마 아저씨는 어떻게 해야겠니?”

아기 단풍나무는 문제를 듣자마자 모험을 떠나기 직전에 해준 아빠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물을 더 주면 안 돼요!”

대나무 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렴”

“말벌 청소부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성실한 꿀벌 청소부들을 쫓아내고 아빠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우리 마을을 위해서 계속 일해주던 꿀벌 청소부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아빠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 채 계속해서 말벌들의 달콤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어느 순간, 아빠는 아름다운 잎을 잃고 아프게 되었고 당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마 아저씨도 크고 작은 유혹과 강한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장님이라는 이유로 물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대로 물을 나눠 주어야 해요.”

대나무 대장님은 인자한 미소를 띠며 청렴수를 건네주었어요.

“자, 여기 있단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빠가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얼른 아빠에게 가져다주렴. 잠깐만.”

대나무 할아버지의 마법으로 아기 나무는 집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었어요.

“아빠, 제가 청렴수 가지고 왔어요!!”

아기 나무는 시들시들한 아빠 단풍나무의 뿌리에 청렴수를 뿌려주었어요. 그러자, 아빠 단풍나무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과 아기 나무가 청렴수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빠 단풍나무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아기 단풍나무는 폴짝폴짝 기뻐하며 아빠 단풍나무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해요!”

“그래, 아들아.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고맙다.”

아빠 단풍나무는 과거의 죄를 반성하며 해독 효능이 있는 단풍나무 열매를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으쌔! 으쌔!”

“애들아, 여길 봐! 단풍 열매가 맺혔어!”

일 자리를 잃었던 꿀벌 청소부들도 아빠 단풍나무의 열매를 보고 다시 풍풍마을로 돌아왔어요. 말벌 청소부들은 마을에서 인심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단풍나무야, 청렴해져서 돌아왔구나.” 꿀벌 청소부가 말했어요.

“그때는 미안했어... 많이 반성하고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 아빠 나무가 말했어요.

그렇게 풍풍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끝>